

이흥재의 세상만사



봄비가 다녀가셨다. 우리의 마음까지 환하게 했던 봄꽃도, 비바람에 숙절없이 꽃잎을 떨군다. 땅 위에 소복이 떨어진 꽃잎이 생선 비늘을 닮았다. 그토록 흐드러지게 피었던 순천 동천의 벚꽃 역시 지금쯤은 다 지고 말았으려나?

옛그제 삼산이수(三山二水)의 고장 순천을 다녀왔다. 옥천(玉山)과 함께 이수(二水)의 하나인 동천(東川)은 순천 시내를 가로지르는 하천이다. 순천만으로 이어지는 천변 꽃길을 걸으며 꽃향기에 흠뻑 취했다. 군데군데 늘어선 수양버들도 연초록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여기저기 연인들은 꽃 속에 묻혀 꽃이 되었다.

순천만까지 걷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것 같다. '아랫장' 부근에서 돌아 나오기로 한다. 마침 점심때라 허기(虛飢)도 몰려오고 해서 택시를 잡았다. 곧바로 택시 기사에게 묻는다. 선거철인데 이곳 순천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작자인가. '대구의 김부겸·순천의 이정현'을

글감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그때 이정현이 당선됐지만 이번엔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택시 기사는 한동안 뜸을 들이더니 말문을 연다. "팽팽할 것 같애라우. 그래도 국회의원 이라하면 순천에 박시 하나쯤은 물어다 줘야 되겠어~" 그렇게 던지시 지지자를 밝히는데, 아마도 '예산폭탄'을 '홍부의 박씨'에 비유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그나저나 대구의 김부겸은 이번만큼은 크게 앞서고 있다니 다행이다)

이런 '3공선거' 처음 본다

집에 돌아와 보니 원로 언론인들이 만드는 조그만 신문이 도착해 있다. 문득 한 줄 제목에 시선이 쏠린다. "기자 40년에 이런 3공(空) 선거 처음 본다" '3공 선거'라니, 이걸 또 무슨 말이고? 바로 그 아래 붉은 소재목을 보니 의문이 풀린다. 1. 공천(空選)-또 갈라 먹기 그 사람들네. 2. 공약(空약)-도들이표 약속 이젠 지겹다. 3. 공표(空표)-누구를 찍어 달라는 말이나.

이번 선거의 특징을 딱 집어낸 기발한 표현이다. 역시 신문쟁이들이라 다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총선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참으로 어지러웠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상당히 공천이니 개혁 공천이니 모두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말았다. 신선한 공약도

'호남 자민련'이면 또 어떠한가

참신한 인물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도 호남 유권자들은 기본이 좋다. 2번이나 3번이나, 참으로 오랜만에 골라 찍는 재미를 누릴 수 있게 됐으니까. 아담이 돌로 갈라진 덕분이다. 이리저리 곰곰 생각했다가도, 투표소에만 들어가면 하는 수 없이 2번을 찍어야 했던 세월이 그 얼마였던가.

하지만 이번 선거도 생각보다 싱겁게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의 치열한 싸움이 예상됐지만, 아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이 광주에서 8석 전석을 송두리째 석권할 기세다.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당이 '호남 자민련'이 될 것이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하지만 '호남 자민련'이면 또 어떠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다. 수십 년 여당에 버림받고, 기껏 밀어주었던 야당에게도 뺨 맞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권경교체가 나중 일이고, 전략투표니 하는 것도 호사기들의 말일 뿐이고, 차라리 '호남당' 소리 듣더라도 실속을 좀 쟁겨야겠다는 속내 또한 없지 않을 것이다.

어찌 됐든 '녹색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시작된 바람은 돌풍이 되어 전복을 지나고, 이제는 수도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국민의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래도 더민주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개가 실린다. 더민주의 친노 운동권 세력은 -아마 생애적(生來的)인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우선 변화를 읽지 못했다. 과거 그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었지만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호남 사람이 많고, 그렇게 민심이 확연히 달라졌음을 그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오죽하면 이번에 광주의 한 후보가 자기 당의 전 대표더러 제발 물러나라고 삼보일배까지 하는 촛군이 벌어졌겠는가.

국민은 투표 끝나면 노예

더민주의 뒤늦게 호남 지역의 '반문'(반 문재인) 정서를 깨닫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인 김중민 대표를 불러 왔지만, 이 또한 크나큰 실수였다. 하필이면 국보위 출신이란 말인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 민주화' 역시 이미 한 번 우려먹은 철 지난 구호였으니, 유권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봄비 한 번 다녀가시더니 비엔날레 거리의 벚꽃도 하릴없이 지고 있다. 지는 것은 벚꽃만이 아니라 호남의 더민주도 함께 지고 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지만 이 벚꽃 지고 나면 백일홍이 또 꽃망울을 터트릴 것이다.

백일홍은 100일 동안 붉은빛을 잃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 붙여진 꽃이다. 하지만 꽃 한 송이가 100일 동안 피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꽃이 지고 피고를 반복하는데, 그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목백일홍'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서였다. (그리고 보니 이번에 출마한 도정환 시인도 당선됐으면 좋겠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백일홍은 선비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꽃나무다. 담양의 명옥헌에만 가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선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꺾질을 벗겨내는 백일홍을 보며 자기 갱신 의지를 다지곤 했다고 한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이들도 당락을 떠나서, 이처럼 꺾임없이 자기 갱신을 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된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어떻든 국회의원은 국민들보다 똑똑하다. 그들이 잘나서 의원이 됐다면 당연히 똑똑한 것이고, 그들이 못났는데도 의원이 됐다면 그걸 모르고 선출한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이다.

국민들이 총선 출마자나 국회의원들로부터 급진급진 절을 받을 날도 이제 5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겠다. 왜? "국민은 투표할 때만 자유로우니까,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고 나면 국민은 또다시 노예로 전락하니까." 이는 프랑스의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한 말이다. <주필>

알립니다

제43회 光日보훈대상

광주일보사가 제정한 光日보훈대상이 올해로 43돌을 맞이합니다. 光日보훈대상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깨끗하게 삶의 터전을 꾸려가는 모범 국가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자활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포상 추천 대상자
 -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자립에 성공해 타의 모범이 된 사람
 - 중상이지의 배우자로서 중상이지의 정신적·신체적 지주가 되어 삶의 의지와 보람을 갖도록 조력한 사람
- 접수 : 2016년 4월 15일(금)까지
- 발표 : 2016년 6월 6일(월) 광주일보
- 시상 : 5명(상금 각 100만원·부상)
 - 일시 : 6월 14일(화) 오후 3시
 - 장소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 문의 : 광주지방보훈청 보훈과 (062-975-6644)

주최: 光日報 후원:광주지방보훈청

亞문화원 공연사업본부장에 김희정 상명대 교수 선임



아시아문화원은 "김희정(48) 상명대 음악학과 교수를 공연사업본부장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작곡가이자 공연연출가로 연세대 작곡과를 졸업한 뒤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에서 석·박사를 땀다. 2003년 세

계여성음악제 집행위원장을 맡았으며 미국 국제여성음악인연맹 이사, 천안·각원사 국제 여성음악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김 본부장은 옛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연예술감독의 역할을 맡게 된다. 임기는 3년.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 촬영한 영화 '해어화' 13일 개봉

양림동 최승효 가옥·오웬기념관·충장로 등 배경 시, 영상산업 발전·관광자원화 위해 제작 지원

광주시민들이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해어화'(解語花·감독 박흥식·제작 ㈜더랩)를 보게 된다면 '어디서 많이 본듯한 장소'라며 고개를 갇웃할 지 모르겠다.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자산과 공간에서 촬영했기 때문이다. 양림동의 최승효 가옥과 오웬기념관, 조선대, 충장로 일대가 배경으로 등장한다. 영화는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우리 대중가요가 일제의 탄압을 받던 1943년을 배경으로 세 남녀의 우정과 사랑, 질투와 갈등을 그린다.

영화 제목 '해어화'는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의미로, 당나라 현종이 당대 최고 미녀인 양귀비를 칭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다. 광주시는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작품을 지원했다. 영화에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의 박흥식 감독이 연출을 맡고 한효주, 천우희, 유연석 등이 출연한다. 시는 지역 영상문화산업 발전과 촬영장

소의 관광 자원화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촬영과 제작과정에 광주에서 소비된 금액의 최대 40%까지 지원하는 영화·드라마제작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어화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판도라'(감독 박정우·제작 ㈜씨에이엔터테인먼트), '날보라와요'(감독 이철하·제작 ㈜오에이엘) 등 총 5개 작품에 2억여 원을 지원했다.

광주시는 지역에서 촬영과 후반작업(CG컴퓨터그래픽)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만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산업과 도시 마케팅,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며 "지역 명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상영되면 광주 마케팅과 브랜드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장우 가옥에서 촬영한 영화 '해어화' 한 장면.

당신의 광장/집안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아린이(초등학교)	미취학아린이
월요일 12,500원	8,500원	5,000원
화요일~일요일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부동산 재테크 금맥강좌

수강생 모집

부동산 재테크 금맥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부자되실 분, 투자하실 분, 부동산중개업 오픈하실 분, 경 공매 컨설팅하실 분, 기타 부동산 전반에 관하여 관심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 과목 : 실전경제, NPL, 토지, 상가, 공장, 특수물건, 금융, 도시계획, 명도 기타 (월~금, 요일별로 과목이 다름, 요일별 수강 가능, 상담요망)
- 과정 : 각 과목당 1개월 완성
- 개강 : 매월 초 (수시접수, 신청순 30명 마감)
- 시간 : 오전반 10:00~11:50 / 오후반 17:00~19:00

특전 : 이해될 때까지 반복수강 가능, 명사특강시 수강료 할인 등 기타.

강사 초빙

경험과 재능을 갖춘 강사님을 모십니다. 교수들의 문의를 고대합니다.

모집공고

- ▶ 부동산금융대출분야 (복수물건대출, NPL담보대출, 미준공건물담보대출, 배당채권담보대출, 신탁부동산대출 등)
- ▶ 상가분석분야 (상가개발, 분양, 투자, 입지분석 등)
- ▶ 토지개발실천투자분야 (토지개발행위분석, 토지행위절경과 자금분할, 토지분할, 도로의 개설,건축관련법규분석, 특수토지의 활용방안분석, 재개발, 재건축등)

부동산 재테크 종합학원 **한국토지경매학원**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주) 4층
☎ 062-229-1512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친한 문화사업자만 저비용 안내를 우선하여 드립니다.

부동산 재테크 종합학원 **한국토지경매학원**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주) 4층
☎ 062-229-1512